책을 내면서

당이란 무슨 말이나?!

철없던 그 시절 두눈 깜빡 물어보던 우리 이 물음에 담 긴 뜻 어머니당창건 65돐을 맞는 뜻깊은 이 아침 다시 금 심장깊이 새겨봅니다.

당이란 태양의 미소 지으시고 오늘도 우리 학생소년 들속에 계시는 붉은넥타이 매신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손풍금소리 울려라 이 노래 부르며 달려가 안기는 태양의 그 품입니다.

당이란 꿈결에도 뵙고싶은 우리 아버지, 전선길에 계시는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비바람 사납게 몰아쳐도 선군동이 우리들의 머리우에 희망의 푸른 하늘 펼쳐주는 선군의 총대입니다. 온 나라 아이들을 행복의 꽃수레에 태워주신 아버지장군님의 하늘같은 사랑입니다.

당이란 이 땅에 사는 천만자식모두가 어머니라 부르 며 달려가 안기는 백두산위인들의 그 품입니다.

편집부는 이번에 어버이대원수님께서 창건해주시고 아버지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영광스러운 우리 당, 조선 로동당의 창건절을 맞으며 어머니당을 흠모하는 학생소년 들의 마음이 담긴 65곡의 가요를 선정하여 편집한 학생소 년노래집 《어머니당을 노래해요》를 내보냅니다.

차 례

1.	당이란 무슨 말이나	(6)
	대원수님은 우리의 해님	(7)
	대원수님 모신 둥근달아	(9)
	대원수님 손들어 가리키셔요	(11)
	대원수님 회고록 읽어갈 때면	(13)
	대원수님을 뵈웠습니다	(15)
	내 나라는 대원수님의 한평생이죠	(17)
	대원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셔요	(19)
	김정일장군님 우리 행복 꽃퍼주시지	(20)
	김정일 장군님은 우리 아버지	(22)
	김정일원수님 계시여 우리도 있어요	(23)
	장군님사랑	(25)
	장군님 한분밖에 우린 몰라요	(27)
	사랑의 자욱	(29)
	작구님 발자국소리	(31)

	내 동생 물음에 대답했지요	(33)
	고마운 눈길	(35)
	고맙습니다	(37)
	나는 대답해요	(39)
	나의 아버지	(41)
	내 마음	(43)
	편지	(44)
	제일 먼저 피운 꽃	(45)
2.	우린 꽃송이 우린 꽃나비	(47)
	나는 좋아요	(48)
	더하기 덜기 곱하기 나누기	(49)
	더 큰 행복 마중와요	(51)
	동무를 사랑하자요	(53)
	밤풍경	(54)
	다섯손가락	(55)
	정오엔 그림자가 없어요	(56)
	하얀 고드름	(57)

	어머니가 난 좋아 (61)	
	여기서 내가 산다 (62)	
	제일 기쁜 날 (63)	
	례절바른 학생이 될래요 (65)	
	우리 학교 교재림 (67)	
	꽃마음 (69)	
	척척이래요 ····· (70)	
	대동강에 물새가 내려요 (71)	
	강성대국 첫 포성 울리였어요 (73)	
8.	당기발따라 붉은넥타이 날려갈래요 (74)	
3.	당기발따라 붉은넥타이 날려갈래요 (74)	
3.		
8.	날려갈래요 (74)	
8.	날려갈래요 (74) 김정일장군님 위하여 《항상준비》 (75)	
3.	날려갈래요 (74) 김정일장군님 위하여 《항상준비》 (75) 김정일장군님의 조선소년단 (76)	
3.	날려갈래요 (74) 김정일장군님 위하여 《항상준비》 (75) 김정일장군님의 조선소년단 (76) 겉모습이 어른인가 뭐 (77)	

나는나는 크거든	(83)
나의 중학시절은	(85)
낮이나 밤이나	(87)
내가 만든 눈사람	(89)
내 조국이 아니라면	(90
다 대드릴래	(92
당기발따라 날리는 붉은넥타이	(94
나의 딱친구	(95
대원수님 당부 어머님 당부	(97
량심	(99
나를 보고 욕심이 하늘같대요	(101)
쿔퓨터는 나의 준마	(103)
한줄로 이으면	(105)
보배시간 내 동무	(107)
장군님 숙제를 다 했습니다	(109)
우리 학교 영웅학교 되게 할테야	(111)
강성대국 3대기둥 빛내갈래요	(112)
우리 분단 경쟁도표	(113)
룡남사 맹세의 산아	(115)

1. 당이란 무슨 말이나



대원수님은 우리의 해님



- 2. 재를 털고 학교를 먼저 세웠고 야영소와 궁전도 세워주신 대원수님 불밝은 궁전봐도 힘이 솟는다 아이들을 왕이라 불러주셨네 (후렴)
- 3. 어린이를 나라의 보배라시며 앞날의 조선을 안겨주신 대원수님 지덕체 큰 날개 펼쳐주시며 나라의 기둥으로 키워주셨네 (후렴)

대원수님 모신 둥근달아



- 우리들을 보시고 손저어주시며 대원수님 달속에서 웃고계셔요 그리운 우리 마음 하늘에 닿아서 대원수님 둥근달에 모시였나요

달아달아 둥근달아 저 하늘의 둥근달아 열두달을 하루같이 대원수님 모셔주려마 달아달아 둥근달아

대원수님 손들어 가리키셔요



 만수대언덕에 서계시는 우리의 대원수님 손들어 손들어 가리키셔요 당을 따라가래요 우리 당 우리 당은 장군님이라시며 장군님만 따라가래요 장군님만 따라가래요

3. 만수대언덕에 서계시는 대원수님 뵈올 때면 장군님 한분만 따르며 모실 맹세 더욱 커져요 아 대원수님 그 손길 따라 장군님만 모셔갈래요 장군님만 모셔갈래요

대원수님 회고록 읽어갈 때면



- 2. 숙제공부 마친 밤 한자 또 한자 회고록의 글줄을 따라걸어요 그러면 길림바람 불고불어와 오늘도 나에게 말해주어요 대원수님 세상에 제일이라고
- 3. 읽을수록 험한 길 헤치여오신 대원수님 그 자욱 안기여와요 그러면 안도에 울린 총소리 오늘도 나에게 말해주어요 대원수님 세상에 제일이라고

대원수님을 뵈웠습니다



 10월의 광장에 높이 서계신 대원수님 뵈웠습니다 들끓는 건설장 그 어데서나 대원수님 뵈웠습니다 대원수님모습으로 우리 장군님 온 나라를 찾으십니다 대원수님 모습으로 찾으십니다 대원수님 모습으로 찾으십니다

그 사랑 그 손길 그 넓은 품은 대원수님 꼭같습니다 아 우리의 장군님 장군님은 대원수님 대원수님이십니다

내 나라는 대원수님의 한평생이죠



- 백두의 험한 길 전선 천리길 내 나라에 행복의 길 되였습니다 지새신 사령부의 작은 귀틀집 추녀높은 우리 집 되였습니다 (후렴)
- 3. 맞으신 수억만 눈송이들이 우리 웃음 꽃송이로 되였습니다 찬바람 눈바람은 봄바람 되여 우리 웃음 꽃밭을 펼쳤습니다 (후렴)
- 4. 행복의 꽃동산 우리 나라는 대원수님 걸어오신 한평생이죠 김정일장군님을 더 잘 받들어 천년만년 우리 나라 빛내렵니다 (후렴)

대원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셔요



- 2. 좋은 일 내가 할 때면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등산길 먼저 오르면 정말 용타 기뻐하셔요 (후렴)
- 대원수님 그리울 때면 장군님을 생각하고 장군님 생각하면 대원수님 뵙는것 같죠 (후렴)

김정일장군님 우리 행복 꽃퍼주시지



- 2. 나의 기쁨 너의 기쁨 누가 주시나 아버지장군님 꽃펴주시지 나라의 보배동 모두 되라 끝없는 사랑을 안겨주는 우리의 아버지 김정일장군님
- 3. 나의 미래 너의 미래 누가 주시나 아버지장군님 펼쳐주시지 나라의 영웅동 모두 되라 희망찬 앞날로 이끄시는 우리의 아버지 김정일장군님

김정일장군님은 우리 아버지



- 2. 불구름 비바람도 막아주시고 따뜻한 봄빛만을 뿌려주셔요 (후렴)
- 미래로 활개치며 걸어가라고 희망찬 밝은 앞날 펼쳐주셔요 (후렴)

김정일원수님 계시여 우리도 있어요



- 배움의 푸른 꿈 꽃을 피워주시고 기쁨의 노래도 우리에게 주셔요 김정일원수님 계시여 우리도 있고 김정일원수님 계시여 희망도 있어요
- 3. 조선을 빛내갈 주인이 되라고 따사론 손길로 우릴 키워주셔요 김정일원수님 계시여 우리도 있고 김정일원수님 계시여 미래도 있어요

장군님사랑



- 2. 따뜻합니다 따뜻합니다 우릴 품에 안아주시며 장군님께서 장군님께서 펼쳐준 우리의 요람 대원수님 주시던 사랑 모두모두 합쳐주시니 장군님사랑 장군님사랑 그 사랑이 따뜻합니다
- 3. 위대합니다 위대합니다 내 조국의 미래 펼치며 장군님께서 장군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사랑 대원수님 주시던 사랑 모두모두 합쳐주시니 장군님사랑 장군님사랑 그 사랑이 위대합니다

장군님 한분밖에 우린 몰라요



- 2. 한결음 걸어도 열걸음 가도장군님 가라는 그길만 갈래요그길에 우리 희망 푸른 꿈 있어김정일장군님 한분밖에 우린 몰라요
- 3. 글 한자 배워도 장군님 위해 노래를 불러도 장군님 위해 소년단 나갈 길 밝혀주시는 김정일장군님 한분밖에 우린 몰라요

사랑의 자욱



- 2. 잘도 도는 발전소 보아주시며 그리도 기뻐하신 우리 장군님 해님아 그 자욱 녹이지 말아 두줄기 찍혀진 승용차자욱 사랑의 자욱
- 흰눈송이 또 내려덮는다 해도 해별이 내려쪼여 녹는다 해도 우리의 가슴속에 남아있어요
 장군님 찍으신 승용차자욱 사랑의 자욱

장군님 발자국소리

예술영화 《한 녀학생의 일기》중에서



- 눈덮인 령길에 자욱을 새기며 전선길 가시는 아버지 안녕 바라네 깊은 밤 별빛이 고요히 흐르는데 조용조용 들려오네 장군님 발자국소리
- 3. 너와 나 정답게 부르는 아버지온 나라 가정에 귀중한 우리 아버지하늘땅 끝까지 따라서 가는 길에너도나도 안고살자 장군님 발자국소리

내 동생 물음에 대답했지요



2. 대답만 기다리는 동생을 나는 품에 안고 물어보았죠 옥이야 고운 옷 누가 주셨니 예쁜 리봉 팔랑 누가 주셨니 내 동생 방울목소리 또랑또랑 울리는 방울목소리 아버지원수님 주셨지요 지도자선생님 주시였지요

※ ↓8소절 마지막박자부터 반복

옳지옳지 네 말이 옳아 우리 행복 앞날도 꽃피워주는 당이란 아버지원수님 당이란 지도자선생님이죠

3. 당이란 그 뜻이 무언지 우린 모두모두 알았답니다 아버지원수님 세워주시고 지도자선생님 빛내시는 당 아 해빛같이 찬란히 빛나는 은혜로운 당 우리모두 천만년 받들어 영원히 대를 이어 따르렵니다 아 따르렵니다

고마운 눈길



2. 여름밤 반디불을 손벽에 놓고서 호박꽃속에 넣고서 등불을 만들 때 별처럼 어둠속에 나를 지키시는 빛나는 그 눈동자 내 못잊어요

한없이 고맙고 따뜻한 그 눈길은요 아버지장군님의 눈길이예요

고맙습니다



- 2. 전승광장 축포꽃 누가 피우셨나만풍년의 노래는 누가 주셨나열두달열두달 하루같이 우리 나라 빛내주신 대원수님 원수님 고맙습니다
- 3. 가는 해의 큰 자랑 누가 주셨나오는 해의 새 희망 누가 펼치시나열두달열두달 하루같이 우리 앞날 꽃펴주신대원수님 원수님 고맙습니다

충성동 효자동 우리모두 그 언제나 한마음 대원수님 원수님 고맙습니다

나는 대답해요



 조국이란 조국이란 그 무엇인가 나는나는 대답해요 장군님이라고 장군님 계시여 조국도 있고 조선의 꽃봉오리 우리도 있죠 장군님은 고마운 어머니조국 그 품속에 안기여 우리도 자라요

3. 대원수님 세워주신 조선로동당 승리에로 이끄시는 우리 장군님 대원수님 찾아주신 어머니조국 온 세상에 빛내시는 우리 장군님 장군님은 우리 당 우리의 조국 그 손길을 따라서 우리도 나가요

나의 아버지



- 내가 쓴 편지도 보아주시고 행복의 사진도 찍어주셔요
 아 나의 아버지 김정일장군님 세상에서 제일제일 좋아요
- 3. 주시는 그 사랑 크면 클수록 효성의 마음도 함께 자라요아 나의 아버지 김정일장군님 세상에서 제일제일 좋아요

아 나의 아버지 **김정일**장군님 효성다해 길이 모셔갈래요

내 마음



만나뵙고 돌아서며는
 그리움은 더욱 커져요
 지도자선생님 사랑의 한품에
 아 날마다 안기고싶어요

편 지



- 나라의 기둥이 되라고 하신 아버지장군님 사랑의 편지 아 희망찬 앞날로 이끌어주는 그 사랑 안고서 나는 자라요
- 날마다 가슴에 새기여보는 아버지장군님 사랑의 편지 아 효성의 한마음 꽃피워가며 그 사랑 안고서 나는 자라요

제일 먼저 피운 꽃



- 향기가득 풍겨 더욱 고운 꽃이 창밖에는 눈이 와도 곱게곱게 피였죠 장군님 그리워 2월을 기다려 너랑나랑 정성다해 가꾼 꽃이죠 (후렴)
- 3. 2월 명절아침 장군님을 우러러 꽃봉오리 마음담아 선참으로 드린 꽃 장군님 그리워 2월을 기다려 너랑나랑 정성다해 가꾼 꽃이죠 (후렴)

2. 우린 꽃송이 우린 꽃나비



나는 좋아요



- 2. 또박또박 우리 글을 새겨갈 때면 한자라도 곱게 쓰라 타이르지요 (후렴)
- 꽃무대에 내 노래가 울려갈 때면 제일먼저 박수치며 기뻐하지요 (후렴)

더하기 덜기 곱하기 나누기



- 2. 덜기 덜기 무엇이 덜어지나 내 나란 어딜 가나 화목한 나라 아버지장군님 은덕아래서 걱정이 모두모두 덜어만지니 야하 정말 좋아 덜기가 좋아 근심과 걱정이 덜어만져가니 정말정말 좋아요
- 3. 곱하기 곱하기 무엇이 곱해지나 내 나란 어딜 가나 한마음한뜻 아버지장군님 높이 받드는 그 마음 천만배로 곱해만지니 야하 정말 좋아 곱하기가 좋아 그 마음 천만배 곱해만져가니 정말정말 좋아요
- 4. 나누기 나누기 무엇이 나눠지나 내 나란 어딜 가나 준마를 타고 아버지장군님 따르는 길에 온 나라 뜨거운 정 나누며 가니 야하 정말 좋아 나누기가 좋아 뜨거운 그 정을 나누고나누니 정말정말 좋아요

더하기 덜기 곱하기 나누기 정말정말 좋구좋아 (좋다)

더 큰 행복 마중와요



2. 일심단결 널리리 즐거운 땅에 꽃봉오리 행복만을 안고살아요 제일 좋은 모든것을 안겨주시는 장군님을 오직 한맘 따라갈래요 더 큰 행복 마중와요 널리리야 널리리 널리리야 널리리 해마다 마중와요

더 큰 행복 마중와요 아리아리 아리랑 널리리야 널리리 해마다 마중와요

동무를 사랑하자요



 서로 도와 다정히 숙제할 때면 장군님의 그 말씀 울리여와요 (후렴)

밤 풍 경



 달달 달은야 둥글둥글 달은야 혼자 나왔네 몰래 혼자 나왔네 정말 아름다운 밤풍경 우리 평양 밤풍경 저만 혼자 보고파 몰래 나왔네 달달 둥근 달

다섯손가락



- 그 언제나 열심히 공부 잘해서 파학의 큰 문을 열어갈래요 나는나는 꽃잎손 활짝 펼쳐요 다섯손가락 다섯손가락
- 3. 우리 엄마 기뻐서 잡아주던 손 오늘은야 장군님 잡아주셨죠 나는나는 꽃잎손 활짝 펼쳐요 다섯손가락 다섯손가락

정오엔 그림자가 없어요



장군님사랑 따뜻한 해빛
제일제일 가까이 비치는 정오
그래요 그래요 꽃망울 우리
근심걱정 그림자 하나 없어요

하얀 고드름



2. 우리 집 처마끝 하얀 고드름 한뽐두뽐 커가요 왜 쿨가요 새해에도 5점꽃 피워갈 얘기 창문가에 내려와 듣고싶대요 아 고드름

원수님의 품속에 꽃피는 행복 보고싶어 듣고파 내려온대요 아 고드름

똑 똑 똑



2. 똑똑똑 누가누가 문을 두드리나요 문여니 방긋 웃는 의사선생님 대사: 《앓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 고마워요 내 나라 내 조국 사회주의 병원이 환자를 찾아가는 내 나라는 고마워요

3. 똑똑똑 누가누가 문을 두드리나요기쁨이 찾아오는 행복의 노래아 고마워요 내 나라 내 조국 사회주의김정일장군님 꽃퍼주는 내 나라는 고마워요

아 고마워요 내 나라 내 조국 사회주의 너도나도 우리의 사회주의 지키여가자요

어머니가 난 좋아



여기서 내가 산다



- 2. 누구나가 하나같이 뭉쳐진 나라 서로 돕고 이끄는 화목한 나라 (후렴)
- 대원수님과 로동당이 이끄시는 나라
 온 세상에 자랑하며 높이 선 나라
 (후렴)

제일 기쁜 날



- 2. 원수님은 우리를 만나시며는 제일제일 기쁘다고 말씀하셔요 우리들도 원수님 만나는 날이 기쁨중에 제일 큰 기쁜 날이죠 (후렴)
- 원수님을 뵙고픈 온 세상 마음 날마다 달마다 커가는 마음 그 마음 합치여 모두 합치여 우리들은 설날을 기다리지요 (후렴)

레절바른 학생이 될래요



2. 뻐스타고 유희장 놀러 가는데 할아버지 오르시겠죠 방실방실 웃으며 자리 내주고 어서어서 앉으시라 얘기했더니 할아버지 기뻐서 하는 말이 뉘집 손자인지 뉘집 손자인지 기특하대요

너도나도 언제나 그 언제나 례절바른 학생 례절바른 학생 우리 될래요

우리 학교 교재림



- 3. 새야새야 고운 새야 노래불러라 우리들의 새 지식을 넓혀주어라 대원수님 높으신 뜻 어려있는 그 말씀 노래불러 전하여주렴

꽃 마음



- 2. 잘못이 있는 동문 일깨워서 고쳐주고 앓는 동무 친한 동무 정성다해 돌보았죠 (후렴)
- 나어린 우리 동무 모두 자라 동지되고 동무위한 그 사랑은 동지애로 꽃핀대요 (후렴)

척척이래요



- 콤퓨터화면에 숨은 비밀도 밤새워 척척 내가 찾았지 오를수록 신비한 과학의 비밀 내가 척척 찾는다 척척이래요
- 3. 앞날엔 조국이 주는 임무도 남먼저 척척 해제낄래요 장군님이 바라시는 무슨 일이나 내가 척척 할거래 척척이래요

대동강에 물새가 내려요



- 평양모습 고이 비낀 물결의 거울 깨칠가봐 깨칠가봐 조심히 내려요 장군님 사랑속에 꽃피는 우리 평양 그 품에 안기고파 깃을 펴고 내려요
- 3. 대동강에 내려요 물새가 내려요 맑고 푸른 물결우에 흰 물새 내려요 온 세상을 다 보아도 이처럼 맑은 강 그 어데도 없다고 노래하며 내려요

강성대국 첫 포성 울리였어요



- 모진 고난 폭풍우도 맞받아 나아가는 주체조선 그 기상이 우주를 덮었어요 (후렴)
- 3. 세상으뜸 사회주의 내 나라 내 조국을 강국으로 빛내여주신 장군님 우러러요 (후렴)

3. 당기발따라 붉은넥타이 날려갈래요



김정일장군님 위하여 《항상준비》



- 2. 오늘의 행복도 그 품에 있고 희망찬 앞날도 그 품에 있다 (후렴)
- 장군님품에서 지덕체 다져 주체의 미래를 펼쳐가리라 (후렴)

김정일장군님의 조선소년단



 소년단기 날려라 펄펄 날려라 지덕체의 날개 활짝 펼치자 장군님만 보위해가는 영예론 소년근위대 우리는 김정일장군님의 조선소년단

겉모습이 어른인가 뭐



- 연구사형님 가방 척 끼고 머리 한번 넘겨보니 정말로 멋있구나 내 벌써 어른이 다 됐는가 무슨 생각 겉모습이 어른인가 뭐 속이 어른이지
- 3. 나이를 먹는다고 어른인가 키크다고 어른인가 지덕체 다지여 몸과 맘 모두 준비돼야지 장군님 기쁨되면 나이어려도 어른이 다 된거지

장군님 기쁨이 될 큰일할테야 나도 할테야

군복입은 병사가 나는 좋아



- 초소를 지키는 병사가 있어 희망찬 배움의 노래도 있어라 (후렴)
- 청춘의 꽃나이 귀중하여도 장군님 위하여 목숨도 바치리 (후렴)

그 학생이 바로 저랍니다



- 2. 그 언제 보아도 례절이 바르고 체육을 잘하여 소문난 학생 (후렴)
- 3. 지도자선생님 바로 옆에서 사랑의 기념사진 찍은 그 학생 (후렴)

내 나라는 아버지장군님의 나라



- 설레는 벼바다엔 그 사랑 있고 불타는 쇠물속엔 그 믿음 있네 (후렴)
- 자애론 품에 안겨 한식솔되고 효성을 다해가니 행복 넘치네 (후렴)

나는 나는 크거든



- 2. 너는 너는 크거든 무엇 되려니나는 나는 크며는 기술자 되지기술자가 되여선 무엇하려니우리 나라 좋은 나라 꾸려나가지
- 3. 너는 너는 크거든 무엇 되려니 나는 나는 크며는 영웅이 되지 영웅이 되여선 무엇하려니 우리 나라 좋은 나라 지켜나가지

나의 중학시절은



- 이 가슴에 꿈많은 중학시절은 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시절 랄랄라랄라랄라 나는야 랄랄라랄라랄라 나는야 장군님 따르며 빛을 뿌리는 내 나라의 별이 되고파
- 3. 청춘으로 자라는 중학시절은 총잡을 한마음 커가는 시절 탈랄라랄라랄라 나는야 랄랄라랄라랄라 나는야 장군님 제일로 사랑하시는 내 나라의 병사 되고파

탈랄라랄라랄라 랄랄라 랄랄라랄라랄라 랄랄라 장군님품에서 미래로 가는 중학시절 나는 사랑해

낮이나 밤이나



- 2. 낮이나 밤이나 그 사랑 끝없는 그 사랑 생각해 품안아 날 키워주시는 지도자선생님 생각뿐 (후렴)
- 3. 낮이나 밤이나 한마음 내 가슴 맹세로 불타라 언제면 언제면 그 사랑 보답해드릴가 드릴가 (후렴)

내가 만든 눈사람



- 2. 쇠물뽑는 혁신자 용해공을 만들가 농립모쓴 농장원 만들어볼가 야하하 멋있네 모두모두 좋지만 금빛훈장 번쩍 인민군대 눈사람
- 내가 만든 눈사람 인민군대 되여서 일당백 펼쳐갈 내 모습이지 야하하 멋있네 정말 정말 멋있네 내 나라 지켜갈 앞날의 내 모습

내 조국이 아니라면



- 2. 사회주의 내 조국 만일 아니면약값이 없어서 쓰러졌으리내 조국이 아니라면 내 조국이 아니라면쓰러졌으리
- 3. 우리모두 잘사는 나의 조국을 너도나도 언제나 지키여가자 세상으뜸 나의 조국 세상으뜸 나의 조국 지키여가자

대원수님 원수님 꽃퍼주신 나의 조국 지키여가자

다 대드릴래



- 2. 롱구도 마라손도 패권 쥐겠다니 엄마도 엉터리라고 웃으시겠지 장군님 오시면 대드릴래 엄마도 내 맘 다 알아주게 탈랄랄라 라라랄라 장군님 오시면 대드릴래
- 3. 내 나라 받들어 큰일할 마음 엄마랑 동무들이 다 몰라줘도 장군님 내 마음 다 아실거야 장하다고 칭찬해주실거야 아 아버지장군님께 대드릴래 대드릴래 다 대드릴래

당기발따라 날리는 붉은넥타이



 길없는 밀림을 간다고 해도 눈속에 묻히여 쓰러진대도 당기발 우러러 천만번 넥타이 쥐고서 일어서리 (후렴)

나의 딱친구



- 2. 품바품바 손풍금 나의 딱친구 경제선동 함께 하는 나의 딱친구 내가내가 사랑하는 친구 많아도 나는나는 손풍금 제일 좋아요 랄라 좋은 일 잘해 내 나라 빛내는 효자동 될래
- 3. 퐁퐁 뛰는 롱구묭 나의 딱친구 키도 훌쩍 크게 하는 나의 딱친구 내가내가 사랑하는 친구 많아도 나는나는 롱구묭 제일 좋아요 랄라 몸단련 잘해 내 나라 빛내는 보배동 될래

대원수님 당부 어머님 당부



2. 주작봉마루 우리 오르니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 어서 커서 장군님의 일손을 덜어드려라 우리 어머님 우리 어머님 조용히 하시는 말씀 내 가슴 울려주어요

대원수님 우리 어머님 그 말씀 지켜갈 맹세 더욱더 불타올라요

량 심

작사 려진숙 작곡 조승학 보통속도로 뜨겁게 1. 량심 사람의 량 심은 심장 심장과 같-다고 아버지 장 군님 뜨거울 게 말씀하 셨 이없이는 못-살아 간직하 자 깨끗한 량 심 심 장 안 - 고서 간직하 자 깨끗한 심

2. 순간순간을 살아도 우리 언제나 후회없이 걸음 한걸음 걸어도 그 언제나 부끄럼없이 장군님 받드는 한마음 간직하자 깨끗한 량심

> 장군님 그 명언 안고서 간직하자 깨끗한 량심

나를 보고 욕심이 하늘같대요



- 2. 달나라 별나라 찾아가서 발전소 세워볼가 끝없는 저 바다 물결우에 풍년벌을 펼칠가 그랬더니 그랬더니 동무들 하는 말 나를 보고 나를 보고 욕심이 하늘같대
- 3. 날마다 날마다 내 가슴엔 욕심이 커만가요 내 나라 세상에 빛내여갈 그 욕심은 내 결심 라랄라랄 라랄라랄 동무들 하는 말 나를 보고 나를 보고 욕심이 하늘같대

콤퓨터는 나의 준마



- 2. 저 하늘 별무리모두 징검돌삼아 온 우주 뜨락을 우리 거닐어보자 (후렴)
- 3. 콤퓨터나래를 어서 활짝 펼치고 희망찬 파학의 세기 꽃피워가자 (후렴)

한줄로 이으면



2. 내가 쓴 연필들을 모두 합치면 최우등 5점탑 높이 솟겠지 으쓱으쓱 내 연필 그냥 오르면 《광명성》저 하늘에 가닿게 되지 아 우리 쓴 연필의 높인 앞날의 내 조국 키가 된대요

보배시간 내 동무



- 똑딱똑딱 내 동무 열두시간 내 동무 너와 함께 복습 예습 나는 할테야 너는 너는 수학복습시간 한문제 한문제 풀어갈래 랄랄라 랄라 랄랄라라 정말 좋아요
- 3. 똑딱똑딱 내 동무 보배시간 내 동무 너는 너는 나에게 귀중한 동무 한초한초 너를 아껴가며 새 지식 새 지식 다져갈래 랄랄라 랄라 랄랄라라 귀중한 시간

아껴갈테야

장군님 숙제를 다 했습니다



 숙제공부 다하면 앞날 커서도 내 조국이 주는 임무 다한다 하신 장군님 말씀을 지켜갑니다 언제나 꼭꼭 지켜갑니다 아 숙제를 다했습니다 날마다 열심히 공부 잘하여 언제나 5점꽃 피우렵니다 아 5점꽃 피우렵니다

우리 학교 영웅학교 되게 할레야

- 공부를 할 때도 행진할 때도 영웅의 그 마음 안고 자라요 나라의 자랑인 영웅이 되여 우리 학교 영웅학교 되게 할테야
- 금별의 위훈을 그리여보며 앞날의 영웅들 자라나지요 장군님 아시는 영웅이 되여 우리 학교 영웅학교 되게 할레야

강성대국 3대기둥 빛내갈래요



 장군님 한분밖에 모르는 사상 장군님 결사옹위 일당백총대 장군님의 나라 뗠칠 파학기술의 3대기둥 지덕체 다지여 빛내여갈 강성대국 3대기둥

우리 분단 경쟁도표



- 서로 도와 5점꽃 최우등기쁨 체육명수 우리의 자랑을 싣고 우쭐우쭐 자라는 경쟁도표줄 도표판에 차면 어떻게 하나 랄라라라라라 랄라라라라라 우쭐우쭐 경쟁도표줄 넘쳐나면 어떻게 하나
- 3. 우리 분단 지덕체 활짝 꽃피워 영예로운 붉은기자랑 펼칠 날 도표줄들 꼭대기에 다 올랐다가 축하의 테프로 쏟아질거야 랄라라라라라 랄라라라라라 도표줄들 꼭대기에서 꽃테프로 쏟아질거야

룡남산 맹세의 산아



2. 룡남산 노울빛을 받아안고서 휘날리는 넥타이는 더 붉게 타요 장군님나라를 꽃피워나갈 우리들의 맹세안고 붉게만 타요 아 룡남산 맹세의 산아

학생소년노래집 어머니당을 노래해요

편 집 변정환, 리옥금
장 정 손명희 편 성 정향애 콤퓨터편성 전윤희 교 정 오향선
낸 곳 금 성 청 년 출 판 사 인쇄소 평양종합인쇄공장-2
인 쇄 주체99(2010)년 7월 25일
발 행 주체99(2010)년 7월 30일
기-06390 값 50원

© Kumsong Youth Publishing House 2010 D P R Korea ISBN 978-9946-21-226-5